

“학생들 목소리, 정책에 반영할 것”

전북교육청, 2019 학생 정책제안 ‘정책을 부탁해’ 시상·차담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25일 2019 학생 정책제안 정책을 부탁해 시상 및 차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우수 정책을 제안한 학생들과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가 함께 모여 제안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반영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정책제안에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로 115건이 접수됐으며, 순위에 관계 없이 우수 정책 제안 학생 1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1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선정 된 작품은 김강서 학생의 ‘선생님과 함께 하는 1대1 학습’, 김시현

학생의 ‘준비물 대여소 운영’, 김채원 학생의 ‘청소년 청원 흡피 시행’, 이지연 학생의 ‘학교 독서실을 만들어주세요’, 이지원 학생의 ‘전북 학생 소식 발간, 일상화 학생의 날 맞는 교육정책’, 정민영 학생의 ‘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상담 밴드 활성화’, 조은얼 학생의 행동으로 배우는 환경교육’.

조정빈 학생의 ‘야 학교 너두 용돈기 입장 쓸 수 있어’, 지세인 학생의 ‘계단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설치’ 등이다.

전북교육청 정영수 대변인은 “학교 생활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제안해줘서 고맙다”며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들을 보완하고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학생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교육방향이나 학교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주고 받으며 의미있는 시간들로 채워갔다.

임상훈 학생(군산중고 2)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문이 양쪽에서 잘 맞아야 열리듯 교육청에서 열심히 준비해 준 만큼 저희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어겠다”고 말했다.

조은얼 학생(전북기계공고 2)은 “참가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을 보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많이 배우게 됐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니 놀랍고 기대도 된다. 앞으로 더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25일 2019 학생 정책제안 ‘정책을 부탁해’ 시상 및 차담회를 가졌다.

전북대, 온라인 수업 우수 교원 28명 포상

대상에 이기태 교수…창의·전문적인 교수법 호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올해 코로나9로 인해 본격 시행된 온라인 강의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교수를 ‘온라인 Best Teacher’로 선정, 포상했다고 밝혔다.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뉴沉默로드센터 강당에서 청의적이고 전문적인 교수법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수성을 과거 28명의 교원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처음 열린 온라인 강의 우수 교수 대상에는 이기태 교수(광대 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박재영 교수(시범대학 영어교육과), 이준기 교수(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와 권상희 강사(생활대학 의류학과) 등도

우수한 온라인 강의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이기태 교수는 전공 수업인 ‘세리피상평형’에서 매우 우수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로 열역학의 기본 법칙과 상평형 이론 등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고취시켰고, 학생들이 학습한 이론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켰다.

김동원 총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코로나9로 인해 대학사회도 비대면 수업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혼란스러움을 경험해야 했음에도 열정적인 교수

님들 덕분에 우리대학 비대면 수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대학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알찬대학, 따뜻한 동행을 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생명과학부 강현석 동문
모교 로스쿨거쳐 법무관 임관



원광대학교(총장 박민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강현석(2017년 졸업)은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올해 법무사관에 임관했다.

학부과정을 1년 조기졸업하고 2020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9기)한 강현석 동문은 제9회 변호사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데 이어 곧바로 장기 군법무관 선발 시험에도 합격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군법무관 대위로 임관했다.

특히 강현석 동문은 103명의 법무사관 94기 대표로 활동하면서 임관식 지휘자로 활약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과 뛰어난 교육 성적을 인정받아 육군참모총장상을 수상하는 기업을 토했다.

법과 정의로 영원히 한 길로라는 법무사관 94기 구호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 강현석 동문은 “워광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했다”며, “성공한 군인보다는 존경받는 군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간=장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체육회관내 ATM기기설치
전북체육회, 신규 직원 채용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도 체육회에 따르면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력직 신규 직원 3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분야는 법률전문가(6급)와 국제업무전문가(7급), 일반행정(9급)이다.

법률 전문가는 법정법인화 추진을 비롯해 도 체육회는 물론 회원증복지체·시군체육회의 법률적 행정서비스

등 각종 법령 적용과 함께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시흘 간이다.

/장은성 기자

아름다운 장수의 가을 풍경이
여러분의 추억 여행을 책임집니다!

장수군청 NAVER 검색



ONE-YEAH(원예) 협동조합은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직접 재배한 허브로 만든 천연송편비누와 손소독제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허브로 만든 비누·소독제 써 보세요

전북대생이 키운 허브 제품 판매 행사 눈길

국내 최초 국립대 국유재산을 임대해 농사를 짓는 ONE-YEAH(원예) 협동조합은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직접 재배한 허브로 만든 천연송편비누와 손소독제를 선보이고, 이 사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홍보와 판매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예약을 통해 제한된 인원만 방문토록 하고 일부 현장 방문 인원은 마스크착용 확인, 발열체크, 방문자 기록 등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이준구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부단장은 “농산부문아 주도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원예분야 작물 생산·가공·판매 등 사업을 통해 현장실무능력 향양과 예비청년창업농 양성을 위해 2018년 12월 설립됐다.

현재 아이허브유, 포도동, 김강하장 등 3개 작품을 운영 중이며, 각각 허브류, 포도, 김강 채소 등의 재배활동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이 주최하고, 전북

대 행복청업PLAN 사업단(단장 홍인호 교수)과 ONE-YEAH(원예)

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

사는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단이 영농창업동아리 인큐베이팅

/장은성 기자